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 영 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등학생 대상 전통문화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이 화 진

초등학생 대상 전통문화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주 영 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이 화 진

인 준 서

이화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논문개요

초등학생 시기부터 일상생활이나 교육활동 속에서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아동은 전통문화를 즐겁고 의미 있게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다양한 세계화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고유한 문화정신을 계승하려는 문화교육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르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예절기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 박물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을 토대로 초등학생 시기에 전통문화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통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전통문화를 분류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전통문화교육을 전통생활교육(개인생활예절/가정생활예절/전통예절), 전통예술교육, 전통놀이교육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서울특별시 교육 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교 전통문화교육을 조사해 본 결과 2011년도 3월부터 11월에 걸친 기간 동안 총 58개의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생활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인사예절(64%), 언어예절(50%), 자세와 식사(42%), 방문예절 (21%), 호칭과 전화예절(14%) 순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전통예절 교육 시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한복입기(82%), (74%), 다례(47%), 다식 만들기(24%)와 관혼상제(9%)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예술은 국악을 배우거나 관람을 하는 학교는 (88%),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하는 학교는

(13%)로 조사되었다. 전통예술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지만 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통놀이 프로그램은 민속놀이(60%), 전통음식 만들기(53%), 전통공예(7%) 순이었다. 민속놀이 프로그램은 투호놀이, 윷놀이, 강강술래, 고누놀이, 비석치기 등으로 다양했다. 전통공예에는 청사초롱 만들기, 전통 탈 만들기가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놀이를 교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통문화교육의 일환인 전통놀이 교육은 일회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간 혹은 교과활동과 연계활동을 갖고 체계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기관의 전통문화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하였다. 예절기관들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10곳을 선별하였다. 각 예절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분석 하였으며 기관의 위치, 교육비, 교육목표, 교육일정, 교육내용 등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모든 예절원에서 인사예절, 식사예절, 전화예절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배례법, 다례교육 등 전통예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었다. 큰절, 평절을 기본으로 하고 한 예절실습과 정성으로 차를 우리는 방법을 배워 차를 마실 때의 예절을 배우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과 올바른 몸가짐을 배우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었다. 조사한 결과 관혼상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고 있었고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인터넷 교육과 국제예절은 교육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 사료된다. 전통예술프로그램의 경우 서예, 천연염색, 전통음악, 전통공예, 도자기, 전통회화 순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전통놀이의 내용으로는 투호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굴렁쇠 굴리기, 국궁 등으로 다양했다.

셋째, 박물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박물관을

포함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7곳의 교육 내용을 조사하였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박물관에서 전시된 유물의 이해를 돕는 교육이었고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고유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전통공예, 전통음악 등 전통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따른다.

연구대상이 초등학교에서 정규교과목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닌 비정규적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예절교육기관, 박물관과 같은 외부 교육으로 한정되므로 초등학생의 전통문화교육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첫째, 초등학교의 일반적인 정규교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전통문화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전통문화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구안에 반영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전통문화교육으로 각 지역별 문화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창의인성 교육넷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의 전통문화교육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방법	4
II. 초등학생 발달단계와 전통문화교육	6
1.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6
2. 전통문화교육	10
3.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전통문화교육	21
4. 선행연구	25
III. 초등학생 대상 전통문화교육 실태	28
1. 초등학교의 방과 후 전통문화교육	28
2. 예절교육기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	35
3. 박물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	42
IV. 결론 및 제언	60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1〉 발달이론과 초등학생시기의 발달단계	7
〈표 II-2〉 학교교육에서의 전통문화교육 내용 분류	18
〈표 II-3〉 2009개정 초등 교육과정에 따른 전통문화 관련 교육적 인간상과 교육 목표	24
〈표 III-1〉 초등학교 방과 후 개인생활예절/가정생활예절 분야 교육 실태 ..	29
〈표 III-2〉 초등학교 방과 후 전통예절교육 실태	31
〈표 III-3〉 초등학교 방과 후 전통예술교육 실태	33
〈표 III-4〉 초등학교 방과 후 전통놀이교육 실태	34
〈표 III-5〉 선정된 초등학교 대상 예절기관의 위치와 특징	36
〈표 III-6〉 방학 프로그램 참여시 교육기간별 비용	36
〈표 III-7〉 예절기관별 전통예술교육 실태	40
〈표 III-8〉 예절기관별 전통놀이교육 실태	41
〈표 III-9〉 한국 박물관 교육의 역사	43
〈표 III-10〉 국립중앙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46
〈표 III-11〉 국립경주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48
〈표 III-12〉 국립광주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49
〈표 III-13〉 국립민속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어린이와 가족이 행복한 교육	52
〈표 III-14〉 국립민속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어린이 박물관 속 또 하나의 학교	53
〈표 III-15〉 국립청주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55
〈표 III-16〉 국립부여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57
〈표 III-17〉 국립김해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58

그림 목 차

<그림 Ⅲ-1> 국립민속박물관의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54
-------------------------------------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민족의 정서와 혼이 담긴 아리랑이 유네스코(UNESCO) 인류문화 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됐다. 현지 시간으로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의 등재를 확정했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이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체에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무형 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를 갖췄고 등재 과정에서 학자와 연구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동아일보 동아닷컴, 2012.12.06). 아리랑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모범적 사례로 전통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선 개국 이후 국가 이념과 생활규범으로 기능했던 유교 등 우리의 전통 문화는 일제 지배 35년간 철저히 파괴당했다. 해방이후 미군정과 한국동란을 거쳐 우리나라에는 미국문화가 본격 유입되고,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서구화나 미국화가 근대화로 인식되는 분위기 가운데 미국문화는 별다른 통과의례 없이 본격적으로 수입되었다(심광현, 1996). 급속하게 진행된 경제 발전의 영향으로 서구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에 우리의 전통은 차츰 사라지고 문화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왔다.

더욱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무엇이 우리의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가를 알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유입되

는 서양의 유행을 모방하고 국적 없는 문화의 혼돈 속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전통문화는 우리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다국적 문화가 빈자리를 매워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한 문화에 아이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김미경, 2003).

오늘날은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공간으로 재구성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찾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적 자부심을 북돋고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통문화의 보전은 현대 사회에서 문화 경쟁력이 되어, 국가의 경쟁력에 기여한다.

일례로, 대중문화 사례 중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에서 8억 369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조회수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12년 7월 15일 공개된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7월 24일 유튜브의 모든 카테고리를 아울러 역대 ‘가장 많이 본 동영상’ 순위 1위에 올랐다. 독특한 음악과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 팬들이 글로벌한 플랫폼인 유튜브에 패러디 영상을 올리고 이 콘텐츠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확산되어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한류 열풍과 같은 이러한 우리 문화의 저력과 가능성의 원천은 전통문화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미래 문화를 창조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이해하여, 계승 발전시킨다면 ‘우리 것’이 세계 사회의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VIP의전관광 전문업체 코스모진이 2011년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0일간 한국을 방문했다가 출국하는 외국인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경복궁’이 53%, ‘친절함’이 22%, ‘안전성’이 14%로 조사되었다. 공자의 7대손 공빈이 「동이열전」에 쓴 글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절을 중시하는 민족으로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집중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크게 변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었다. 이는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졌고 부모의 과잉보호와 과도한 교육열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도외시 시키고 있다. 이는 전통적 가치체계가 약화되고 소중한 전통문화가 소멸되는 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우수한 문화성과 민족성을 보존하는 데에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국수주의자, 복고주의자, 혹은 세계화를 반대하는 장애물로 간주 당할 정도로 우리의 전통문화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된 것은 학교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김장실, 2001). 이러한 과업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전통문화의 생산과 전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곳은 학교이므로, 학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임재해, 1991). 또한 각 사회기관 단체에서도 학생들의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전통문화교육은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일상생활이나 교육활동 속에서 전통문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전통문화를 즐겁고 의미 있게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다양한 세계화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고, 고유한 문화정신을 계승하려는 전통문화교육은 중요한 의미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통문화교육 관련 요소들을 추출하여 서울 소재 내 초등학교의 방과 후 전통문화교육, 예절교육기관과 박물관의 전통문화교육을 조사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전통문화교육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전통문화교육은 초등학생들에게 인성 함양과 문화 의식 고취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이 학생들의 전통문화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서는 어떠한 전통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예절교육기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떠한 전통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박물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떠한 전통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에 의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활동 및 방과 후 전통문화교육 실태, 예절교육기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 실태, 박물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다.

첫째, 서울특별시 교육 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도 3월부터 11월에 걸친 기간 동안 총 58개의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특별활동 및 방과 후 전통문화교육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교육 내용을 전통생활(개인생활예절/가정생활예

절)과 전통예술 그리고 전통놀이 활동으로 분류하여 실태를 알아보았다.

둘째, 예절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예절기관의 전통문화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포털사이트인 naver.com, google.co.kr, daum.net의 검색엔진을 통하여 ‘예절학교’, ‘예절캠프’라는 검색어로 검색된 예절기관들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10곳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선별된 각 예절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분석하여 기관의 위치, 교육비, 교육목표, 교육일정, 교육내용 등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조사된 교육 내용을 전통생활(개인 생활예절/가정생활예절)과 전통예술 그리고 전통놀이 활동으로 분류하여 실태를 알아보았다.

셋째, 국립박물관의 부설형태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7곳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따른다.

연구대상이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과가 아닌 비정규적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외부 교육인 예절교육기관, 국립박물관에서의 교육으로 한정되므로 초등학생의 전통문화교육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Ⅱ.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와 전통문화교육

본 연구는 초등학교 방과 후, 예절기관, 박물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 중에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전통문화교육의 목표의 방향에 대해 명확히 밝혀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을 토대로 초등학생 시기에 전통문화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전통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전통문화를 분류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아동 발달단계를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정서발달,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로 구분할 수 있다. 손홍숙(2011)에 따르면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로 발달단계를 구분하며 아동기는 영유아기(0~6세)와 학동기(6~12세)로 본다. 초등학교 시기인 학동기는 영아기, 유아기, 청년기에 비해 극적인 변화 없이 점진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체적 조작 능력 습득, 근면성 발달, 인지 능력 발달 등 이루어져야 할 주요 과업이 있는 시기이다. 초등학교 시기의 발달단계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학자에 따른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는 전통문화교육을 ‘어떻게, 왜 가르치는가’와 학습 원리를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문화교육을 통한 초등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도덕적, 사회적,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하여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 이론, 콜버그(Kohlberg)의 도덕적 판단이론, 헤비거스트(Havighurst)의 발달과업 이론,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Ⅱ-1> 발달이론과 초등학생시기의 발달단계

구분	구분	학자	초등학생시기의 발달단계
1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 Piaget	구체적 조작기
2	도덕적 판단 이론	콜버그 Kohlberg	인습적 도덕수준
3	발달과업 이론	헤비거스트 Havighurst	아동기
4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에릭슨 Erikson	근면성 대 열등감

<표Ⅱ-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 번째 피아제 (Piaget)의 이론을 살펴보면, 인간의 타고난 능력 중 탁월한 것은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알아가는 과정은 발달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촉진시키며, 두 단계가 겹쳐지면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게 된다. Piaget에 의하면 학습과 이해에 대한 아동들의 수용능력은 대체로 그들의 특수한 발달 단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고 한다. 인지란 알게 하고 정보를 창출하게 하는 등의 모든 정신적 과정, 즉 지각, 사고, 기억, 학습, 문제해결 등을 포함한 말이다. 따라서 인지발달 단계이론은 인간의 사고발달을 설명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황보경, 1999).

발달 단계는 전체적으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이루어지고 초등학생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아동은 논리적 사고가 어느 정도 활용되어 보존 문제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추상적인 문제의 해결에서는 논리적 사고를 적용하지 못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사물 상호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사고한다. 그러므로 어떤 판단이나 추리의 형식은 이들 판단이나 추리하는 내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임선하, 1985; 조재훈, 1996 재인용).

두 번째, 콜버그 (Kohlberg)는 아동의 도덕판단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된다는 피아제의 의견에 동의하여, 피아제의 도덕발달의 두 단계를 여섯 단계로 확장시켰다. 콜버그는 아동에게 도덕적 갈등상황을 겪는 가상적 이야기를 제시한 후 그 판단에 따라 도덕성 발달 수준을 나누었다.

초등학생은 대체로 전인습 수준에 해당되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발달이 고정된 일부 성인들도 포함된다. 전인습 수준 아동은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하여 벌, 보상 등의 신체적 또는 쾌락적 행동의 결과, 규칙과 표시를 규정해 주는 사람들의 물리적 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사회를 보는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른들에게 모든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고 규칙은 단지 즐거움을 주는 행동과 괴로움을 주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역할만 할 뿐 규칙에 대해 언급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김경미, 2005). I 단계의 아동은 규율을 어겨 받아야 할 벌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단계이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며 심리적인 관심보다는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는 ‘타율적 도덕’의 성격을 지닌다. II 단계의 아동은 각 개인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도덕적 행위가 결정되며 다른 사람도 똑같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도덕적 행위에는 공정한 교환이 포함된다고 여긴다(조복희 외 2010). 옳고 그름을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도구적 도덕’이라 한다.

세 번째, 헤비거스트(Havighurst 1952)는 학교에서의 교육목표의 발견과 진술, 교육적 노력의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간발달의 시기를 6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6개에서 10개의 발달과제를 제시하

였다. 그는 발달과제를 특정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인간발달의 세 분야를 두루 다루었다. 그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기에 해당된다. 아동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는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기능과 사회집단, 제도에 대한 책임감 인식 등이 있다(김인규, 임은미 2007).

네 번째, 에릭슨(Erikson)은 건강한 인격의 발달에 두고 원본능(id)보다는 자아(ego)에 주된 관심을 두었으며 인격은 일평생을 통한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개인의 성격발달이 뚜렷한 5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고 보았으나, 에릭슨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아 8단계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인간의 성격이론에서 프로이드는 초기 아동의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에릭슨은 인간의 전 생애를 총망라했을 뿐 아니라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5단계까지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발달 단계를 개조한 것이고 나머지 3단계는 5단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시기의 발달단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industry vs.inferiority)’으로 6세에서 11세 사이의 학동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아동이 학교에서 갖는 학습활동 때문에 모든 성적심리가 숨어들게 된다는 의미에서 프로이드는 잠복기라고 했다. 에릭슨은 이 시기를 자아성장의 전환기로 본다. 기초적인 인지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게 되며 동시에 또래들과 어울려 또래문화를 배우고 적응하는 사회적 훈련을 갖게 된다. 이러한 순조로운 학습과 적응은 근면성과 성취감을 발달시키지만 학습이나 놀이에서 실패하거나 배제되면 부적응감이나 열등감으로 발전된다.

위에서 언급한 발달이론을 통해 알아본 초등학생시기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바람직한 전통문화교육은 3장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2. 전통문화교육

한국 고전소설의 대표작인 ‘춘향전(春香傳)’은 전통문화의 판소리 12마당의 하나이다. 조선 영조·정조 전후의 작품으로 추측되지만 작자·연대는 미상이다. ‘춘향전’은 처음 판소리로 생성되어 나중에 소설로 정착되었고, 월각사(圓覺社)이후에 창극(唱劇)이 되었으며, 그 뒤에 희곡·영화·시나리오·뮤지컬 플레이·오페라의 대본 등 다양한 장르를 거쳐 왔다. 2000년, 임권택 감독은 판소리 완창 공연과 뮤지컬을 혼합한 시도로 ‘춘향뎐’을 만들었고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제53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분에 진출했다. 이처럼 끊임없이 재창작되고 있는 ‘춘향전’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모범 사례이다. 이와 같은 전통문화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전통문화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알아보았다. 끝으로 전통문화를 분류하여 본문에서 조사한 전통문화 교육 실태를 분류하는 데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1) 전통문화의 개념

고병익(1976)은 『동아사의 전통』에서 전통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전통이란 변화를 전제로 한다. 즉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는 데에도 바뀌지 않는 그 무엇을 전통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옛날과 동일하던가, 혹은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든가 하는 상황 속에서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둘째, 전통은 계속성을 의미한다.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돌출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일러 전통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전통이란 한 민족을 단위로 하여 면면히 이어져 오는 그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셋째, 전통이라고 간주될 수 있으려면 특정 민족이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어느 민족 혹은 어느 공동체나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전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이길표·주영애(1995)는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에서 문화란 언어나 관습, 제도와 같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학습되는 지식의 체계이며 유구한 역사를 통해 유형·무형으로 민족의 특성을 형성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즉 문화란 어느 사회의 전형적인 생활양식으로 이해되는데,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에서는 문화의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화는 학습된 행동이다. 즉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획득된 사람의 모든 활동과 생활양식이 문화이다.

둘째, 문화는 사회적 유산이다.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람의 능력의 언어적 기반을 강조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계승되는 사회적·역사적인 산물을 뜻한다.

셋째, 문화는 초(超)유기체이다. 초유기체란 유기적인 것 이상이라는 뜻으로 전달성, 변화성, 누적성이 있고 가치기준이 있어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넷째, 문화란 생활설계이다. 즉 문화는 역사적으로 창조된 생활설계이고 집단구성원에 의하여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배용광·변시민 1984 재인용).

이러한 전통과 문화의 정의에 입각해 볼 때 전통문화는 한 집단이 가지

고 있는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총체로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변화하며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전통문화교육의 개념

전통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계통”이다. 서양어의 “tradit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tradito" 혹은 희랍어의 "pradosis"라고 하는데 양자 모두 “넘겨주다”(handing over)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종서외, 1990). 그러나 전통이란 단순히 물려받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단순히 과거에 존재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통을 이루어 오늘 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

이장섭(1998)은 전통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전통문화는 여러 시대를 통하여 생성된 역사적으로 살아 있는 과거로서,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가치관과 미래의 전망을 위해서 의미를 가진다고 정의한다. 그것은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생겨난 특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의 역사적, 문화적인 유산이다. 다시 말해 전통문화란 과거와 유관하며,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정신적인 원동력을 의미하며,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우리 민족의 성장과 정서, 풍토, 양식 등이 농후하게 깃들인 총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뿐만 아니라 유형적인 것에서부터 무형적인 것에 이르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 사고방식 모두를 큰 틀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문화를 변화하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의미 있는 유산이며, 현재 우리 삶의 가치관과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

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전통문화교육은 과거에 이루어진 문화적 결과들을 이해하고, 이를 현재 어떻게 활용하며, 미래로 어떻게 연결할 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결국 전통문화교육이란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활동이며 전통문화가 우리 선조들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통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정재걸, 이해영, 1993).

전통문화교육은 전통문화에 기초한 교육이지만 단지 과거 시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미옥(2011)은 전통에 기초한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첫째, 과거의 우리 것을 가능한 한 모두 파악하는 작업을 하며 둘째, 그 중 현재와 미래에 유익할 것을 선택·결정하여 그대로 전수하면 좋을 것은 그대로 가르치고 일부 수정하여 더 좋을 부분은 변경하며 외국의 것과 연합하여 더 좋아질 부분은 과감히 받아들여 완전히 소화하고 보다 더 발전된 우리 것이 되도록 재창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문화교육은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 전통과 현대를 단절이 아닌 연속의 측면에서 보고, 적극적 · 능동적으로 재창조 · 재해석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문화교육은 역사적으로 전승된 문화유산을 가르침으로써 사람이 가진 내부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내용과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각 기관에서 행해지는 전통 관련 교육, 교육매체와 콘텐츠 등을 전통교육으로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교육이란 초등학교와 학교 밖의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전통생활, 전통예술, 전통놀이를 가르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창조적 계승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 전통문화교육의 목표

전통문화교육은 바른 인식과 올바른 목표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들 중 서구의 시각으로 우리 문화를 왜곡하거나 좁은 시각으로 전통을 미화시켜 국수주의나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로 빠지는 것은 전통문화교육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일어난 결과이다. 따라서 올바른 전통문화교육의 목표와 방향설정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전통문화교육의 목표는 체험과 이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소통능력 개발과 창조적인 인간 양성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교육을 통한 학습으로 학생들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더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까지 배양할 수 있다.

최근에 전통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미 구축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이해력 함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순 체험이 아닌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통합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 문화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지니는데, 능력과 자질을 함양토록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문화교육을 지도 육성할 때 지역자원을 활용한 협력과 연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최영성, 2009). 따라서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데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이렇듯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전통문화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다.

4) 전통문화교육의 목적

1990년대 초, 세계화가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 되었다.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재창조할 때 가장 한국적인 것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문화를 재발견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인 ‘창의교육센터’, 문화예술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전국 초·중·고등 및 특수·대안학교 교육 예술 강사 교육활동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통문화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왜 이루어져야하는지, 그리고 전통문화교육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의 답이 전통문화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전통문화에 기초한 초등학교 전통교육의 목적은 ‘계속적으로 전해 내려온 우리 전통을 알고, 그 중 가치가 있는 것을 따르며 시대의 필요에 따라 우리 전통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전통을 재창조하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데에 있다.

첫째, 전통문화교육은 민족 주체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는 오랜 역사를 통해 계층의 구별 없이 수용될 수 있는 공통적 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한민족을 정신적으로 통일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전경화, 2002). 안휘준(2000)은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우리를 남과 구분지어 주며 우리를 바로 서게 하고 우리가 걸어 온 역사의 발자취를 보여 주는 것도 전통문화라고 하였다(이경선 2002). 따라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위한 노력으로 교육이 필요하

다.

둘째,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전통문화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알게 되면 문화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키며 문화 정체성을 확립시킨다.

셋째,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창조이다. 전통의 개념 속에는 변화성, 계속성, 고유성과 미래지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전통은 시대의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도 생명력을 갖고 꾸준히 전달되어 오는 것이다. 전통은 특정한 시기에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나 집단을 단위로 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독특하고 고유한 것이다. 또한 전통은 미래생활에 응용될 때 더 큰 의미가 있다(유대근 1999).

넷째, 전통문화교육은 국가를 형성하는 힘을 가진다. 전통문화가 없는 나라는 존속될 수 없다. 그 나라의 생활 습관, 생활 방식 등은 국가를 형성하고 민족을 생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전통문화교육은 과거에 이루어진 문화적 결과들을 이해하고, 이를 현재 어떻게 활용하며, 미래로 어떻게 연결할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결국 전통문화교육이란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활동이며 전통문화가 우리선조들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통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정재걸, 이해영 1993).

따라서 전통문화교육은 전통과 근대를 단절이 아닌 연속의 측면에서 보고, 적극적 · 능동적으로 재창조 · 재해석해야 한다는 창조적 발전론의 입장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문화는 서구문명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읽어야 한다는 입장에서(우실하 1997) 전통문화와 전통문화교육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 주체성을 세워야 한다. 문화 주체성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고, 행동, 생활에 알맞은 또 다른 우리 교육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통문화교육은 문화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탁석산, 2001).

5) 전통문화의 분류 방법

전통문화교육을 위해서 전통문화의 내용을 분류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전통문화를 분류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① 민속학에서의 분류

최운식(1998)은 『한국 민속학 개론』에서 전통문화를 민속과 민속학, 세시풍속과 일생의례, 민간신앙, 민속 문학, 민속놀이와 민속예능, 가족과 마을생활, 축제와 민속현장의 7개 영역으로 분류를 하였다.

이 가운데 분류는 민속과 민속학, 연구 대상, 의의와 방향, 민속 조사와 연구방법이 속한다. 세시풍속과 일생의례의 분류에는 세시풍속과 일생의례가 속하며 일생의례에는 출생의례, 성년식, 혼인례, 환갑·회혼례, 상장례, 제례 등이 포함된다. 민간 신앙의 분류는 민간신앙의 개념, 특성, 종류, 의미와 기능이 포함된다. 민속 문학은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속담, 수수께끼가 포함된다.

② 전통교육 관련 논문에서의 전통문화 분류

<표 II-2> 학교교육에서의 전통문화 교육 내용 분류

논문 저자	영역	내용
정재걸·이혜영 (1993)	전통적 세계관	종교, 철학, 민간신앙, 천지, 상위, 여지, 풍수도참사상
	전통적 생활문화	사회구조, 관혼상제, 일상생활, 의식주, 구비전승, 민족, 국가, 정치, 경제, 만물, 인사, 경사, 시운, 제계, 예(禮), 병, 형, 전부, 호구, 시적, 고빙, 선거, 학교, 직관, 예고, 생활과 풍속, 특산명물
	문화재적 전통문화	고고미술, 고전음악, 연극, 예술, 세기풍속, 진승놀이, 민속 예술, 생활기술, 민요, 가사, 유적과 유물, 악(樂)
유대근(2000)	전통생활	집, 먹을거리, 옷, 가족(친족)생활, 세시풍속, 의례생활, 속담, 교통·통신수단 등
	전통사상 및 가치관	종교 및 사상, 가치관, 태도
	전통예술	국악, 전통회화, 서예, 전통도자기, 전통공예, 민속춤, 특징적 이미지, 전통 문화재
	전통놀이 및 운동	민속놀이, 전통무예
	전통과학	전통과학, 산(算)학
	전통어문학	전통문학, 전통어학
	전통생활	음식, 추석, 전통생활용품, 한복입고 절하기, 친척호칭, 촌수, 옛날의 가족관계, 옛날 가족구성원이 한 일, 우리 문화에 깃든 조상의 정신 등
전통예술	판소리, 종로제례악, 탈춤의 장단과 기본춤사위, 탈춤감상, 사물놀이, 국악현악기, 민화, 유형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	
이경선(2002)	전통생활	음식, 추석, 전통생활용품, 한복 입고 평절·큰절하기, 친척호칭, 촌수, 옛날의 가족 관계, 옛날 가족구성원들이 한 일,

논문 저자	영역	내용
		조상들의 여가 생활, 옛날의 가정 소득, 우리 문화에 깃든 조상의 정신,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평소 태도와 관심 등
	전통예술	관소리, 종묘제례악, 탈춤의 장단·기본춤사위·탈춤 감상·사물놀이 특징과 삼채장단, 국악현악기, 강강술래, 채색화, 수묵담채화, 수렵도, 조선시대 민화, 옛 도읍지, 고인돌, 참성단, 강화유적지, 유형문화재(공예품, 옛 서적, 글씨, 그림, 공예품, 도자기, 석조건축), 세계문화유산(석굴암, 창덕궁, 팔만대장경, 종묘, 수원 화성) 등
	전통놀이	비석치기, 윷놀이, 씨름, 제기차기, 널뛰기, 눈썰매타기, 썰매타기 등
박상준(2007)	전통생활	전통가옥, 전통의상, 전통음식, 전통예절, 전통마을 등
	전통풍습	세시풍속, 전통혼례, 전통상례, 전통제례, 마을 또는 지역 축제 등
	전통놀이	탈춤, 씨름, 윷놀이, 줄타기, 널뛰기, 제기차기 같은 민속놀이
	전통예술	민속음악, 민속무용, 민속공예, 민속 문화, 한국화, 유형문화재 등
	전통사상	민속음악, 효 사상, 공동체정신 등
최영성(2009)	전통적 세계관	종교, 철학, 민간신앙, 천지, 상위, 여지, 풍수도참사상
	전통적 생활문화	사회구조, 관혼상제, 일상생활, 의식주, 구비전승, 민족, 국가, 정치, 경제, 만물, 인사, 경사, 시문, 제계, 예, 병, 형, 전부, 호구, 시적, 고병, 선거, 학교, 직관, 예고, 생활과 풍속, 특산명물
	문화재적 전승문화	고고미술, 고전음악, 연극, 예술, 세시풍속, 전승놀이, 민속예술, 생활기술, 민요, 가사, 유적과 유물, 악

정재걸·이혜영(1993)은 『전통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에서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전통문화 항목을 전통적 세계관, 전통적 생활문화, 문화재적 전통문화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학교 전통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전통문화 분류방식의 전제는 첫째, 전통문화가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어 교육내용으로 가르쳐야 하며 둘째, 전통교육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삼아야 하고 셋째, 현재 남아있어서 계승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유대근(2000)은 「제6차 교육과정의 중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전통문화 교육」에서 전통생활, 전통사상 및 가치관, 전통예술, 전통놀이 및 운동, 전통과학, 전통어문학 등 총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경선(2002)은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우리 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등학교 교과에 나타난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전통생활, 전통예술, 전통놀이를 분류하였다. 전통생활의 교과 관련 내용으로는 음식, 추석, 전통생활용품, 한복 입고 평절·큰절하기, 친척 호칭, 촌수, 옛날의 가족 관계, 옛날 가족구성원들이 한 일, 조상들의 여가 생활, 옛날의 가정 소득, 우리 문화에 깃든 조상의 정신,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평소 태도와 관심 등이 있다. 전통 예술에 속하는 교과 관련 내용으로는 판소리, 종묘제례악, 탈춤의 장단·기본춤사위·탈춤 감상, 사물놀이 특징의 삼채장단, 국악현악기, 강강술래, 채색화, 수묵담채화, 수렵도, 조선 시대 민화, 옛 도읍지, 고인돌, 참성단, 강화유적지, 유형문화재(공예품, 옛 서적, 글씨, 그림, 공예품, 도자기, 석조건축), 세계문화유산(석굴암, 창덕궁, 팔만대장경, 종묘, 수원 화성)등이 있다. 전통놀이에 속하는 초등학교 교과 관련 내용으로는 비석치기, 윷놀이, 씨름, 제기차기, 널뛰기, 눈썰매타기, 썰매타기가 있다.

박상준(2008)은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초등 사회과의 전통문화 관련 내

용의 분석」에서 전통문화를 전통생활, 전통풍습, 전통놀이, 전통예술, 전통사상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최영성(2009)은 「전통문화교육의 이론적 기초」에서 전통문화를 학교 전통교육을 위한 분류로 전통적 세계관, 전통적 생활문화, 문화재적 전승문화로 분류하였다. 분류방식을 위한 전제는 첫째,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어 교육내용으로 가르치고 둘째,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장 직접적인 목표로 삼으며 셋째, 현재 남아있어서 계승될 수 있는 것이다. 최영성은 이러한 분류방식이 학교 전통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에 나타난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분류한 이경선(2002)의 방법에 의거하여 전통문화 교육내용을 전통생활, 전통예술, 전통놀이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전통문화교육

초등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은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 발달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이옥형(2002)은 인간 발달은 일반적으로 신체·성격·지능·사회성 등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일정한 순서가 있으며,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고 발달이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 즉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다. 특히 결정적 시기에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되면 심각한 결손을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을 해야 하며, 이는 아동의 문화적 소양 함양, 도덕성, 사회성, 올바른 자아 확립, 인격완성과 인성발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동기는 6~11세에 이르는 시기로 처음으로 공교육을 경험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이다. 생활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감에 따라 환경이 크게 확대되고 부모와 가족 구성원의 영향뿐만 아니라 교사, 친구 등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된다(황희숙 외, 2008). 학교는 학생이 단체 생활의 규칙을 익히게 되는 장소이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모방의 대상이 되기도 함으로써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친구라는 매우 중요한 집단과 접하게 되는데 친구를 통해 사회화를 배우게 된다. 친구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방법을 터득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획득하면서 사회화된다(Munsinger, 1975, 조복희 외, 2011, 재인용). 더 많은 또래를 알게 되면서 확장되어 자율적 도덕성을 보이며 다른 친구들이나 어른들과 더욱 많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또래 친구와 역할극이나 게임을 하면서 규범을 터득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를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볼 때, 아동은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 중 구체적 사물이나 현상이 존재해야만 사고가 가능한 구체적 조작기(3단계, 7-11세경)로부터 구체적 사물이나 현상이 존재하지 않아도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수준에서도 논리적으로 사고가 가능한(W.C.Crain, 1996) 형식적 조작기(4단계, 11-12세경)의 초기단계에 걸쳐있다. 즉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지적 특성은 대체적으로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물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만져보는 것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만이 사물이나 현상을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체험적인 교육이 능률과 학습의 효과가 높을 것이다.

또한 오오히라의 예절발달단계에 따르면 5-8세(形成期 형성기)는 예절의 형식을 익히는 시기로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으며, 9-11세(移行期 이행기)는 예절에 대한 생각이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내면화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게 되고, 정중·겸손해지는 태도를 익혀간다. 12-14세(內面期 내면기)는 아동기 말에서 중학교까지의 시기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피하려 하고, 예절로써 표현되어질 수 있는 내면적 의식이 자라나는 시기라고 한다(정덕희, 1972).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위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전통문화교육을 하는 것은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체험형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지킬 예절과 가정에서 지킬 예절, 또래 간 지킬 예절 등 실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로써 전통생활예절을 학습시키고 전통 음악, 전통 회화 등 전통예술교육을 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국궁, 투호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하는 교육방법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바람직하다. 전통문화교육을 초등학생 시기에 구체적인 행동예절의 습관화를 이루도록 한다면 아이의 인격완성과 인성발달 등 기대에 부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전통문화교육을 지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제시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동법 제23조 제2항),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1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은, 국가 수준에서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고시(공포)함으로써 시행되어 왔다(충주교육청,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이란 2009년 12월 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으로, 학교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 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개정 방향으로 삼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d).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전통문화교육 지도는 무엇인지 교육과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에서 초등학교 교육의 비전으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전통문화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표Ⅱ-1>과 같다.

<표Ⅱ-3> 2009개정 초등 교육과정에 따른 전통문화 관련 교육적 인간상과 교육 목표

인간상	교육 목표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이를 보면 교육에서의 바람직한 인간상은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우리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

의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함으로써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 목표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문화교육을 지도하여야 한다.

4. 선행연구

전통관련 교육 내용을 분석한 연구, 현재 실태를 조사한 연구 그리고 전통 문화를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실천한 연구, 전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재걸·이혜영(1993)은 「전통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에서 기존 전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통교육의 문제는 전통문화를 어떻게 체계화하여 교과 간 혹은 여타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국어, 사회, 국사, 체육 등 고등학교의 각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전통문화의 영역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 전통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세계관, 전통적 생활문화, 문화재적 전승문화의 세 범주로 정리한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목으로 신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통교육의 세 범주 중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교육해야 할 것으로 문화재적 전승문화라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연구자는 전통문화교육이 교과목과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이므로 전통문화를 체험교육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양윤정(2009)은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에서 전통문화교육의 이론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전통문화교육의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고 국내외 전통문화교육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학교 전통문화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전통문화교육의 과제를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라고 보고 초, 중, 고등학교 학습별로 전통적 세계관 중심, 전통생활 중심, 문화재적 전승문화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활동에서 현재에 적합하게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한다.

최영성(2009)은 「전통문화교육의 이론적 기초」에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 방안으로 전통문화의 교육적 가치와 내용을 알아보고 전통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목표와 방향 설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전통문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정책의 수립이 요청되며, 장기적인 교육의 중요성과 학교교육을 통한 교과과정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이경선(2002)는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우리 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등학교 4학년 교과의 전통문화 관련 요소들을 추출하여 재구성한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우리 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각 교과의 전통문화 관련 내용들을 영역 별로 통합하여 재구성한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였으며 우리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홍은주(2008)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의 전통문화 교육내용 분석」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전통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전통문화를 생활문화, 예술문화, 상징과 특산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김행심(2008)은 「초등학교 어린이 전통문화교육의 민속학적 고찰」에서 동몽선습과 사자소학에 나타나는 전통사회의 문화교육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활동으로서의 전통문화교육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 밖에

서 이루어지는 전통문화교육을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민속 박물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알아보았다.

이상의 전통문화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문화 교육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체험 중심의 수업으로 해야 하며 이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초등학생 대상 전통문화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학교 내 전통문화교육을 주제로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학교 방과 후 전통문화수업, 예절기관, 박물관에서의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통합적인 실태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통문화교육과 예절기관의 전통문화교육의 실태를 전통생활, 전통예술, 전통놀이로 분류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박물관교육을 알아보고 어린이박물관을 조사하여 초등학생 대상 전통문화교육을 조사하여 앞으로 초등학교 전통문화교육이 연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초등학생 대상 전통문화교육 실태

1. 초등학교의 방과 후 전통문화교육

초등학교 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 방과 후 시행하고 있는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전통생활과 전통예술 그리고 전통놀이 활동으로 분류하고 전통생활의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생활예절/가정생활예절과 전통예절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서울특별시 교육 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교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조사해 본 결과 2011년도 3월부터 11월에 걸친 기간 동안 총 58개의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비정규 수업으로 각 학교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몇 회기에 걸쳐 학년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추석과 같은 명절을 맞이하여 예절교육과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전통생활(개인생활예절/가정생활예절/전통예절)과 전통예술 분야, 전통놀이 분야로 나누어 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직접 교육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교육 지원청 홈페이지 중 e-교육소식 참여마당에 게재된 내용만을 보고 분석한 것이므로, 학교에서 실제로 교육하는 내용일지라도 교육 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지 않은 내용은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육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있어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① 전통생활 프로그램

전통생활 내용 중 개인생활예절/가정생활예절 분야를 살펴본 결과는 <표Ⅲ-1>와 같이 나타났다. 전통생활을 교육하는 총 14개교에서 인사예절 9개교(64%), 언어예절 7개교(50%), 자세와 식사 6개교(42%), 방문예절 3개교(21%), 호칭과 전화예절 2개교(14%) 순이었다. 이 외에 복장이나 글로벌매너를 교육한 학교도 있었다.

이처럼 학교 예절교육 시간에는 인사예절과 언어예절, 그리고 바른 자세와 식사예절 등을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예절 교육을 시행 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Ⅲ-1> 초등학교 방과 후 개인생활예절/가정생활예절 분야 교육 실태

학교	인사	언어	호칭	자세	식사	전화	방문
서울대진초등학교	0				0		
서울역삼초등학교		0	0				
서울신동초등학교					0		
서울신암초등학교	0	0		0			
서울가동초등학교	0						
서울문정초등학교		0		0			
서울용두초등학교	0				0		
서울전농초등학교	0	0			0		
서울중곡초등학교	0		0	0	0	0	0
서울중암초등학교	0			0			
서울서교초등학교	0	0		0	0	0	0
서울미동초등학교							0
서울용답초등학교		0					
서울동자초등학교	0	0		0			
계	9	7	2	6	6	2	3

<표Ⅲ-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통예절을 교육하는 34개교에서 전통예절 교육 시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한복입기 28개교(82%), 배례법 25개교(74%), 다례 16개교(47%), 다식 만들기 8개교(24%)와 관혼상제 3개교(9%) 순으로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한복입기와 배례법 등은 필요한 수업이다. 현대에는 한복을 입거나 절을 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절하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제대로 갖춰 입으면 몸과 마음이 정돈되고 보운과 통풍으로 인하여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복예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혼상제 교육이 미비한 것은 예절 전문 강사가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전통예절 교육시간은 보통 예절교육 지도자로 연수를 받은 학부모 명예교사를 중심으로 실습위주의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녀를 위한 학교와 학부모의 파트너십 연계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보다 많은 활동을 통해 예절교육이 지속적·반복적 차원에서 실시되기 위해서는 전문 예절강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례와 다식 만들기의 경우 함께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면 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Ⅲ-2> 초등학교 방과 후 전통예절교육 실태

학교	한복	배례법	다례	다식만들기	관혼상제
서울대진초등학교	0	0	0	0	0
서울서래초등학교	0	0			
서울역삼초등학교	0				0
서울일원초등학교	0	0			0
서울송파초등학교	0	0			
서울거원초등학교	0	0			
서울신암초등학교	0	0	0	0	
서울문정초등학교	0	0			
서울둔촌초등학교				0	
서울아주초등학교	0	0	0		
서울가동초등학교		0	0		
서울선린초등학교	0				
서울삼전초등학교	0	0	0		
서울오륜초등학교	0	0	0	0	
서울강동초등학교	0	0	0		
서울신곡초등학교	0	0		0	
서울등원초등학교	0	0			
서울계남초등학교	0	0			
서울영동초등학교			0		
서울양동초등학교			0		
서울전동초등학교		0			
서울용두초등학교	0	0			
서울전농초등학교				0	
서울중곡초등학교	0	0	0		
서울종암초등학교	0	0	0		
서울백운초등학교	0	0			
서울방학초등학교	0				
서울청계초등학교	0				
서울서교초등학교	0		0		
서울성산초등학교	0	0	0		
서울미동초등학교	0	0	0		
서울동자초등학교	0	0	0	0	
서울금호초등학교	0	0			
서울성수초등학교	0	0	0	0	
계	28	25	16	8	3

② 전통예술 프로그램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인간상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는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전통예술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예술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시간이다.

국악배우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남산국립극장 공연장을 찾아가 문화체험을 하기도 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국악공연’과 같이 출강을 하는 단체의 공연도 관람하고 전통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국악을 더욱 친숙하게 여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Ⅲ-3>은 전통예술을 교육하는 8개교에서 국악을 배우거나 관람을 하는 학교는 7(88%)개교,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하는 학교는 1개교(13%)로 조사되었다. 전통예술은 매우 다양하지만 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예술 교육을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표Ⅲ-3> 초등학교 방과 후 전통예술교육 실태

학교	국악 배우기, 관람	도자기 만들기
서울원촌초등학교	0	
서울언주초등학교	0	
서울학동초등학교		0
서울남천초등학교	0	
서울영풍초등학교	0	
서울세륜초등학교	0	
서울오륜초등학교	0	
서울양동초등학교	0	
계	7	1

③ 전통놀이 프로그램

<표Ⅲ-4> 와 같이 총 15개교의 서울시 초등학교에서는 민속놀이 9개교(60%), 전통음식 만들기 8개교(53%), 전통공예 1개교(7%)의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민속놀이 프로그램은 투호놀이, 윷놀이, 강강술래, 고누놀이, 비석치기 등으로 다양했다. 전통공예에는 청사초롱 만들기, 전통 탈 만들기가 포함되었다. 학생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면서 친구들과 우애도 깊어지고 전통문화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놀이를 교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통문화교육의 일환인 전통놀이 교육은 일회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간 혹은 교과활동과 연계활동을 갖고 체계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Ⅲ-4> 초등학교 방과 후 전통놀이교육 실태

학교	민속놀이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공예
서울대진초등학교	0	0	
서울학동초등학교		0	
서울송파초등학교	0		
서울신암초등학교	0	0	
서울평화초등학교	0		
서울명원초등학교		0	
서울오륜초등학교	0		
서울신곡초등학교	0	0	
서울계남초등학교	0		
서울양동초등학교			
서울이문초등학교		0	0
서울가인초등학교		0	
서울동자초등학교	0		
서울양진초등학교	0		
서울천호초등학교		0	
계	9	8	1

2. 예절교육기관의 전통문화교육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기관의 전통문화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하였다. naver.com, google.co.kr, daum.net의 검색엔진을 통하여 ‘예절학교’, ‘예절캠프’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였다. 검색된 예절기관들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10곳을 선별하였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다.

각 예절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분석 하였으며 기관의 위치, 교육비, 교육목표, 교육일정, 교육내용 등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각 교육원의 홈페이지에 교육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은 교육원도 있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업일지라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각 교육원의 홈페이지에는 교육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및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올려 두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1) 초등학생의 전통문화교육 실태

<표Ⅲ-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곳의 교육기관들 중 경상도 지역이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4곳이 모두 경상남도 하동군 청함면 묵계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마을을 도인촌이라고도 부르는데 청학동은 예절기관이 밀집된 지역이라 학교 단체나 개인별로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 곳이다. 그밖에 충청도가 2곳, 경기도 1곳, 전라도 1곳 서울 1곳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의 특징을 보면 각 기관마다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공동의 목

표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확립,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Ⅲ-5> 선정된 초등학교 대상 예절기관의 위치와 특징

구분	기관명	위치	특징
1	Y기관	경기도 이천시	시설과 위치 강조
2	C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잘 갖추어진 웹사이트를 통한 교육 서비스, 국가공인 한자 자격검정기관
3	H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효를 근본, 소수정원제 문화체험서당
4	S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국가인증 수련활동 운영기관
5	K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상생교육, 자아실현교육, 인성교육, 체험활동
6	A기관	경상북도 안동	자연경관이 좋은 지리적 위치
7	B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전통교육과 현대교육의 조화와 인성함양
8	G기관	충청남도 연산면	정신교육의 선구자 역할
9	N기관	전라북도 남원시	친환경 전통서당으로 산수가 수려한 위치
10	I기관	서울 종로구 관훈동	국가 인증 프로그램 운영기관

<표Ⅲ-6> 방학 프로그램 참여시 교육기간별 비용

교육기간	교육비
1주	30~35만원
2주	50만원
3주	65~70만원
4주	80~85만원

교육 일정은 일일체험과 1박 2일, 2박 3일의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주로 방학기간에 1주에서 4주 동안 학생들의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다. 또한 대안교육으로 6개월 이상 예절기관에 학생이 머물면서 학교교육과 서당교육을 동시에 받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예절기관이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등교를 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상 방학기간이 가장 알맞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Ⅲ-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는 교육비는 1주에 30~35만원, 2주에 50만원, 3주에 65~70만원, 4주에 80~85만원선이었다. 그러나 이 중 한 기관에서는 우수한 숙소와 교육 장소, 식단을 특성화하여 1주에 60만원이 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2) 예절기관의 전통문화교육 분석

선정된 예절기관들은 대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예절교육, 인성교육, 한문교육, 체험교육, 전통놀이로 분류하였다. 한문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서당에서 훈장님의 지도를 받으며 사자소학 등의 한문으로 된 예절서를 공부하며 인성예절을 교육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 교육을 전통 생활과 전통예술, 전통 놀이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① 전통생활 프로그램

전통생활 프로그램에는 개인생활예절, 가정생활예절, 사회생활예절, 전통예절이 포함된다. 개인생활예절/가정생활예절의 교육은 모든 예절원에서 인사예절, 식사예절, 전화예절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인사예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절이며 상대방에게 존경과 예를 뜻하는 행동예절이며 언어예절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격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예절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에 ‘사자소학을 통한 인성예절교육’, ‘한자 효 수업’, ‘한문과 예절을 동시에 교육합니다.’, ‘명심보감은 인성교육의 기본교재’, ‘매일 반복되는 예절과 한문교육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습득’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수업을 사자소학, 명심보감, 동몽선습, 격몽요결 등 예로부터 아동을 위한 교육서를 교재로 하여 수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예절 뿐만이 아니라 배례법, 다례교육 등 전통예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었다. 큰절, 평절을 기본으로 하고 한 예절실습과 정성으로 차를 우리는 방법을 배워 차를 마실 때의 예절을 배우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과 올바른 몸가짐을 배우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었다.

조사한 결과 관혼상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고 있었고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인터넷 교육과 국제예절은 교육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 사료된다.

기본 생활예절교육을 중심으로 예절 교육기관에서 합숙을 하며 며칠간 혹은 몇 주간 몸에 익힌 생활예절을 집에 돌아가서 학생들이 바르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숙 참여 이후가 더 중요한 면도 있다. 1주에서 4주 동안의 짧은 기간인 만큼 단기적 효과를 바라기보다 이후 아동의 생활에도 이어

서 적용할 수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 따라서 아동이 예절원에서 배워온 예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러한 단발성의 교육 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을 해서 반복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② 전통예술 프로그램

<표Ⅲ-7>에서 볼 수 있듯이 총 9개의 기관에서 서예 6기관, 천연염색 5기관, 전통음악 4기관, 전통공예 3기관, 도자기 2기관, 전통회화, 민속춤, 솟대만들기가 1기관으로 전통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통음악에 관련된 수업으로는 판소리, 민요가 있으며 전통회화에는 사군자 그리기가 있다. 전통공예 수업으로는 한지공예가 있으며 민속춤으로는 탈춤배우기가 있다. 전통예술은 우리 조상이 창조한 것으로 삶과 문화를 미학적 가치로 표현한 것이다. 학생들이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전통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장점을 계승한다면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전통예술인 서예의 경우, 학생들의 정신집중을 강하게 하고 마음의 평상심을 수련하여 정서순화를 도와주는 교육으로서 많은 기관인 6개의 예절기관에서 교육하고 있었다.

<표Ⅲ-7> 예절기관별 전통예술교육 실태

기관명	전통음악	전통회화	서예	도자기	전통공예	민속춤	천연염색	숫대만들기
Y기관	0							
C기관			0	0	0		0	
H기관	0		0				0	
S기관	0						0	
K기관				0	0		0	
A기관	0		0		0	0	0	
B기관		0	0					
G기관			0					
N기관			0					0
계	4	1	6	2	3	1	5	1

③ 전통놀이 프로그램

<표Ⅲ-8>는 교육기관에서 우리의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전통놀이의 내용으로는 투호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굴렁쇠 굴리기, 국궁 등으로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놀이로는 투호놀이 6기관, 윷놀이 5기관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교육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겨울에는 눈싸움, 눈사람 만들기, 여름에는 미꾸라지 잡기, 물놀이하기 등 야외놀이를 체험한다.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이는 합숙 시에 전통놀이를 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민속놀이를 배우면서 교육생들이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게임, 인터넷과 대중매체로 인하여 야외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기회가 줄어들어 학생들에게 어울려 노는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좋은 시간으로

보여진다. 또한 신나는 체험 활동으로 학기 중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Ⅲ-8> 예절기관별 전통놀이교육 실태

기관명	전통놀이 프로그램
Y기관	투호, 국궁, 새총, 미꾸라지잡기, 황토염색
C기관	투호, 윷놀이, 연 만들어 날리기, 널뛰기, 장기, 말뚝박기, 그네놀이, 줄넘기, 택견
H기관	제기차기, 장기, 공기, 널뛰기, 야외놀이(눈싸움, 눈사람 만들기, 물놀이), 연 만들어 날리기 등
S기관	윷놀이, 제기차기, 장기, 팽이치기, 공기놀이, 국궁활쏘기
K기관	투호, 윷놀이, 씨름, 연 만들어 날리기, 대나무 활쏘기(전통무예), 장기, 공기, 바둑, 널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자치기,
A기관	투호, 줄다리기, 제기차기, 굴렁쇠, 화전, 널뛰기, 종경도
B기관	투호, 윷놀이, 물놀이, 비석치기, 굴렁쇠
G기관	제기차기, 민속놀이
N기관	연 만들기, 눈썰매타기
I기관	투호, 윷놀이, 물놀이, 비석치기, 굴렁쇠

3. 박물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

최근 들어 박물관의 수가 증가하고 박물관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교육의 대상, 방법, 내용, 성격 등이 다양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박물관 교육의 개념과 어린이박물관의 배경을 살펴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교육의 실태를 7개의 국립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박물관 교육의 개념

박물관교육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탄생하였다는 견해가 근래에 와서 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적 사관에 입각해서 미술관의 역사에 대해 기술한 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견해로는 프랑스혁명 이전까지 대부분 유럽의 미술관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나 엘리트 계층에게 소장품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술작품을 소장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미술관 개념이 미국에 이식된 이래, 미국의 미술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대중들에게 미학교육, 미술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미술관의 기본적 임무로 상정하게 된다. 이는 미술관에서 전시와 교육이라는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형숙 2001).

따라서 박신의(2006)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 박물관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박물관 교육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을 하는 사회문화 기관인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평생 교육 활동이며, 오늘날 박물관교육은 다른 기능과 함께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박물관 교육은 주로 전시 또는 소장품과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박물관 교육의 참여를 통해, 참여자에게 박물관의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박물관의 역할과 목적을 알려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최선미(2008)는 <표 3-1>에서 한국 박물관 교육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45년을 기점으로 수집과 보관의 개념을 넘어서 박물관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는 특성별, 연령별, 집단별, 시간별, 형식별로 구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표Ⅲ-9> 한국 박물관 교육의 역사

시대적 구분	중점내용
1945년 이전 수집·보관 기능	- 전시물을 공개하는 단순한 기능 - 유물 보관 장소로서의 역할
1945년-1972년 박물관 교육의 시작	- 국민대상 상설 강좌 시작 - 학술지와 박물관 신문을 창간
1972년-1986년 박물관 교육의 도약기	- 박물관 특설 강좌 개설 -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어 사회 교육의 형태로 전환 - 사회 교육법 제정
1986년-현재 사회문화교육의 확대	-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시행

2) 어린이박물관의 목적 및 특성

세계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은 1899년 미국 뉴욕시의 브루클린에서 생겨났다.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은 브루클린 어머니 협회가 세웠으며 초기의 박물관은 브루클린미술관의 부속기관으로 출발하였다. 이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일하던 굿 이어(William Henry Goodyear)는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어린이박물관을 마련하였다. 이곳은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졌고 배우고, 탐구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어린이에게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졌다. 바로 어린이박물관의 효시이다(염규영, 2005). 브루클린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다양한 어린이박물관이 설립되었다.

국내에는 사립형태로 1995년에 삼성문화재단의 삼성어린이박물관이 처음 설립되었고, 이후 국립박물관의 부설형태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2005),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2005),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2006),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2003),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1998), 국립부여박물관 어린이박물관(2011), 국립김해박물관 어린이박물관(2012) 총 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 형 사설 박물관 형태로 인천어린이박물관(2005),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2011) 등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박물관으로 인류의 문화유산과 예술품을 직접 접하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적 목적을 체험을 통해 오락적인 요소와 학습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들의 행동발달 특성에 맞게 설계된 곳으로 어린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이미현, 2008).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박물관을 포함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7곳의 초등학교

대상 전통문화교육 내용을 조사하였다.

3) 박물관에서의 초등학생 대상 전통문화교육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기관으로 다른 국립박물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곳이며 개관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용산으로 이전하여 2005년 재개관 이후 5년 2개월 만에 2010년 1월 4일, 관람객 1,500만명을 넘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 및 박물관 분야 국제 권위지인 ‘아트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가 2011년 4월호에 발표한 2010년도 세계 박물관 관람객수 조사 결과, 2010년 한 해 동안 총 3,067,909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2010년도 세계 박물관 관람객수 조사에서 세계 9위(아시아 1위)에 올랐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체험과 학습,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교육공간이며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관람하기 전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온 가족이 함께 우리의 역사를 놀이와 학습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식 박물관이며, 만 6세부터 12세를 포괄한다. 주 관람대상은 역사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이며,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시구성과 전시물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음 <표Ⅲ-10>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교육은 지식공감형, 자기주도형, 체험학습형, 특별학습형, 전시연계로 구분된다. 초등학생 대상 전통문화수업은 학생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박물관 전시유물을 스스로 관찰·해석해 봄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도형, 전시 유물이나 교과서 속 문화재를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험학습형, 주 5일 수업제 대비,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대중적, 전문적으로 접근 가능한 특색있는 교육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탐색해보는 특별학습형, 문화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길러주고 문화유산에 담긴 옛 사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험식 학습공간인 어린이박물관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예술분야로 도자기 만들기, 한국화 그리기, 자개 장식품 만들기, 국악기 체험하기가 있다. 어린이 박물관 프로그램 중 고고학자 가족, 옛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찾아서의 프로그램을 보면 고고학 중심의 어린이 박물관임을 나타낸다.

<표Ⅲ-10> 국립중앙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구분	과정명	주제 및 내용
자기주도형	어린이 문화재 탐구반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100배 즐기기 상설전시관 스스로 학습지 활용 및 사후 학습
	미래의 박물관 큐레이터 아카데미	박물관에서 만나는 교과서 속 문화재 박물관 전시유물 연계 교과서 속 대표 문화재 이해, 현장답사
체험학습형	문화재 체험 어린이교실	내가 표현하는 박물관 문화재. 국립중앙 상설전시와 연계한 체험 - 도자기, 한국화, 자개
특별학습형	즐겁고 신나는 토요일 문화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하는 즐겁고 신나는 토요일. 상설전시관 스스로 학습지 활용 자기주도 학습, 체험

구분	과정명	주제 및 내용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토요박물관	신석기 사람들의 삶을 찾아서. 유적답사 및 박물관 관람, 체험을 통한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삶이해	
	문화예술로 꿈꾸는 토요박물관 학교	4색 테마로 만나는 문화재 이야기 문화재를 소재로 공예, 음악, 회화, 조각 분야별 탐 구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실기대회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그리기 대회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유물 소재로 그리기, 글짓기	
	열린 박물관	찾아오는 박물관	버스 속 작은 박물관에서 만나는 교과서 속 문화재 교과서 속 문화재 오감 체험
		찾아가는 박물관	박물관에서 체험하는 우리 문화재 대상별(장애인, 어린이, 성인 등)맞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박물관	우리 악기 이야기	방학 프로그램 -우리 음악과 국악기 체험	
	문화재 병원 이야기	방학 프로그램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이론 수업 및 보존 과학실 탐 방	
	고고학자 가족	고고학에 대해 알아보고 옛날 사람들의 암호인 ‘목 간’의 쓰임을 이해하는 이론 수업과, 이를 바탕으로 목간을 만들어보는 가족 체험 활동	
	옛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찾아서-모자편-	고구려벽화 고고미술사학적 문헌자료를 통한 조우관 (모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험하는 가 족 활동	

② 국립경주박물관

경주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유적지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신라의 고도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지역 특성상 신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문화를 즐기고,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전시품과 이에 연계한 강의, 실습, 답사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표Ⅲ-11>는 국립경주박물관의 2013년 1월8일 ~ 13일까지의 가족프로그램과 2012년 1월 11일 ~ 8월 24일까지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탐, 금관 관련 등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Ⅲ-11> 국립경주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구분	과정명	주제 및 내용
가족 프로그램	옥외전시장의 탐	나만의 소원탐 만들기
	미술관의 탐 관련 문화재	경주의 탐 이야기 책 만들기
	전시실에서 나누는 대화	불상의 얼굴 -감상 및 대화, 반가사유상 얼굴 그리기
	박물관 단소 교실	단소 만들기, 기본 음계와 단소 배워보기
어린이 대상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문화 역사 관련 주제 강의·실습·답사·체험
	우리 문화재 그리기 빗기 대회	박물관 전시품 대상 그리기와 찰흙 빗기-그리기(도화지, 한지 사용), 빗기(찰흙 사용)
	국립경주박물관에서 1박 2일	1박 2일 박물관 체험
여름방학 프로그램	국립경주박물관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교과서 속 신라문화재-금관관련 강의, 전시 감상, 금관 만들기 체험
		월지문화재-강의, 전시감상, 비누클레이로 월지 문화재 만들기

구분	과정명	주제 및 내용
		신라의 토우-강의, 전시감상, 토우 모양으로 우산꾸미기
겨울방학 프로그램	겨울방학 교육 프로그램	고고관 전시품 이해, 미술관 속 불교공예품을 찾아보고 문화재 일기 쓰기, 고고관 속 동물문화재를 찾아보고 문화재 일기 쓰기

③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의 초등학생 대상 전통문화 교육내용은 <표Ⅲ-12>와 같다.

단체프로그램의 경우 박물관 유물을 소재로 한 실물학습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이며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불교미술, 도자, 서화 등 전통예술분야의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표Ⅲ-12> 국립광주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구분	과정명	주제 및 내용
박물관은 내친구	문화재 책갈피	체험학습
	천년의 빛, 나전칠기	나전칠기 체험
단체-박물관 전시유물 연계 학습	박물관 탐험대	워크시트를 활용해 스스로 유물을 찾아 문제를 풀어가는 셀프가이드 방식의 탐험
	박물관 학예직과의 대화	박물관 학예직에게 듣는 우리 문화 이야기
	영상으로 보는 우리 문화	전통 문화 및 역사물 관련 영상 감상
	선사문화	선사문화실 스토리텔링 및 체험학습 -토기, 청동기, 화살촉, 굽은옥 등
	농경문화	농경문화실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구분	과정명	주제 및 내용
		-반달돌칼, 목제품, 칠기, 현악기 등
	고대문화	고대문화실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금동관, 용관, 기와 등
	불교미술	불교미술실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불상, 범종, 탑, 불교 문양 등
	도자	도자실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상감청자, 연적, 도자 문양 등
	유교문화	유교문화실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오침안정법 옛 책, 현자총통 등
	서화	서화실 탐험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초상화 액자, 사군자 병풍 등
	특별전	특별전시실 스토리텔링 및 관련 체험학습
어린이 박물관	똑딱똑딱 어린이박물관	조선백자체험, 분청사기 체험, 하늘빛을 담은 고려청자, 장신구와 토우 이야기, 반짝반짝 장신구, 빗살무늬 토기이야기

④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해마다 200만 여명이 찾는 한국의 대표 생활문화 박물관으로서 한민족과 인류의 생활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터전이 되는 것을 목표(국립민속박물관 윤리강령 전문)로 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2000년 섭외교육과를 신설한 이후로 2003년 어린이 박물관을 개관하고 2009년 어린이 박물관에 교육운영과를 신설하여 교육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은 대표적 국가기관으로서 교육프로그램은 다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본보기가 되는 중앙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크다 할 수 있다(김옥자, 2006).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2003년에 국립민속박물관의 부설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박물관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민속 내용을 체험식박물관으로 구성한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민속생활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이미현, 2008).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와 가족이 행복한 교육, 문화소외지역 계층 해소를 위한 교육, 어린이박물관 속 또 하나의 학교, 문화 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된다. 그 중 초등학생 대상 전통문화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린이와 가족이 행복한 교육과 어린이박물관 속 또 하나의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Ⅲ-13>, <표Ⅲ-14>와 같다.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은 물론 가족교육, 방학교육, 소외계층, 특별전시 연계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박물관을 방문하기 힘든 곳의 어린이들에게 유물·자료를 가지고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시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유물·자료를 수입·보존하고 있기도 한다(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에 놀이마당, 우리동화, 게임마당, 우리문화알기, 온라인 동화로 구분하여 어린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Ⅲ-1>과 같이 국립민속박물관 온라인 콘텐츠 민속놀이를 배우고 체험게임을 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쉽고 재미있게 우리문화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표Ⅲ-13> 국립민속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어린이와 가족이 행복한 교육

구분	과정명	주제 및 내용
가족연계	우리 가족 박물관 나들이	우리 옷과 장신구 이야기, 우리 가족, 우리집 등 우리 문화를 배우기
	우리 물건 우리 숨씨, 장인을 꿈꾸다	지정무형문화재 장인에게서 배우는 전통 공예와 문화를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
	신나는 토요일	한지공예와 민화 배우기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우리 노래, 아리랑 교실	각 지역의 아리랑을 배우고 장단에 맞춰 아리랑을 불러 보며 소중함을 배우기
	우리 최고의 맛과 멋	우리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계절별로 다양한 김지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보기
	夜~好! 문화공감	관소리, 마당극 등 전시, 공연 관람 프로그램
	별난 박물관 즐겨찾기	북촌생활사박물관, 가회민화박물관 등 박물관 인근 지역의 협력망 박물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토요일은 즐거워	민속놀이, 풍물, 탈춤 등을 놀며 배우는 프로그램
민속현장	가자! 1박2일 민속마을로 함께 떠나요	전통마을을 찾아가 1박2일 동안 지역의 문화와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 2012년에는 충북·경북·충남 지역을 방문
	우리의 옛 집을 찾아서	고택 또는 종가를 방문하여 한옥 체험 등 전통 주생활과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
세시	즐거운 명절 신나는 박물관(설대보름·어린이날·단오·추석·동지)	설대보름, 어린이날, 단오, 한가위, 동지에 공연, 명절 체험

<표Ⅲ-14> 국립민속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어린이 박물관 속 또 하나의 학교

구분	과정명	주제 및 내용
학교연계	우리들이 만드는 민속이야기	전래동요를 배우고 전래놀이를 체험
	박물관 속 교과 발견	박물관 전시와 교과서와 연계된 심화내용을 학습
	어린이 민속체험 학교	아리랑을 배우고 소고 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기
방학	내가 꾸미는 우리 색	옛 사람들의 화첩을 만드는 프로그램. 한국화를 그리면서 먹의 농담과 표현방법을 배움
	생각하며 자라기	활동지를 풀면서 전시실을 봄. 모둠별로 민속퀴즈를 풀면서 민속에 친숙해짐
	우리 풍물 좋을시고	풍물을 배우며 우리 악기와 장단의 특징을 배운다. 지신밟기를 통해 조상들의 생활풍습을 이해
	우리문화 우리숨씨	공예품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 전통 한지북아트, 민화가방 만들기 등
	함께하는 민속놀이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조상들의 놀이문화를 이해하고 가족끼리 친목도 다짐
	함께하는 박물관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마을을 방문하여 줄다리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 조상의 생활문화를 체험



재미
PLAY

이것이궁금해요

우리 문화에 관한궁금한것들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식주

- 01 옷감에 염색은 어떻게 하였나요?
- 02 색등쪽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 03 옛날 사람들이도 귀를 풀고 귀고리를 했나요?
- 04 옛날 사람들이도 맨타를 입었나요?
- 05 김치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 06 원장은 어떻게 만들까요?
- 07 옛날에도 냉장고가 있었나요?
- 08 문턱에 앉으면 왜 혼이 나나요?
- 09 외부인은 왜 안채에 들어갈 수 없나요?



전통의례

- 01 옛날에는 왜 심판역이나 상을 차렸을까요?
- 02 상투는 왜 트나요?
- 03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에 고추, 솔 등을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04 결혼식에 국수는 왜 먹을까요?
- 05 물집이는 왜 하나요?
- 06 부모가 돌아가시면 왜 지팡이를 짚고 있나요?
- 07 세배나 제사를 지낼 때 남녀의 손 위치가 어떻게 다른가요?
- 08 차례와 제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09 왜 제사 때 밥에 숟가락을 꽂아 놓을까요?

<그림III-1> 국립민속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⑤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하면서 마음으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공간을 <표Ⅲ-15>와 같이 제공한다. 제1기 어린이 토요일 박물관학교는 지난 2012년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주5일 수업제를 맞아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유도과 학교 밖 역사문화 학습의 장으로 박물관 기능의 확대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박물관, 재미있는 박물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 역사문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가고자 제1기 어린이 토요일 박물관 학교를 마련하였다.

<표Ⅲ-15> 국립청주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

구분	과정명	주제 및 내용
저학년 프로그램	아이러브박물관	토우 만들기, 토기 만들기, 유물모양 찍기, 종이탈 색칠하기, 탁본 찍기, 프로타쥬
주5일 수업제	어린이 토요일 박물관학교	유물과 함께하는 우리 역사문화의 이해, 이론수업과 체험활동, 현장답사
	박물관 속 유물이야기	초상화의 비밀-송시열 영정, 초상화 족자만들기 부처님의 소리를 들어라- 쇠북 문양 티셔츠 만들기 정성으로 쌓은 탑-건뎡으로 석탑 만들기 거울에 담긴 고려인들의 삶 '고려도경'-동경 만들기
학교연계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박물관 특별활동	오방색으로 표현한 나만의 유물문양 티셔츠, 종이탈 색칠, 전통무늬 탁본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어린이들이 문화재를 관찰하여 느낀 점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도록 마련

⑥ 국립부여박물관

부여는 고대에 백제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사비백제의 왕도로서 그 발자취와 참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 아래 충남 서부지역의 선사문화를 비롯하여 백제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 백제의 고도였던 부여의 역사적 배경은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의 많은 문화재와 문화유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백제 역사문화 재현 단지 조성, 백제역사문화관 개관, 정림사지전시관 개관, 백제문화제 활성화와 서동 연꽃축제 등의 문화적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벌인다(김선영, 2008).

국립부여박물관은 우리의 전통문화예술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표Ⅲ-16>와 같은 전통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부여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타 박물관에 비해 독특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제금동대향로를 비롯한 백제사비시기의 유물을 중심적 한 프로그램 등 백제의 고도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백제 문화와 전시유물이라는 뚜렷한 주제를 설정하여 백제전문박물관으로서의 지역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선영, 2008).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백제문화유산과 관련된 고유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국립부여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은 어린이들의 백제 문화 및 전통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Ⅲ-16> 국립부여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

구분	과정명	주제 및 내용
어린이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와 떠나는 여행	백제금동대향로와 백제문화에 대해 체험
학교연계프로그램	신나는 박물관 놀이터	어린이박물관 탐방 및 향로 속 동물 만들기 체험
	교과서 속 백제문화재를 박물관에서 만나다	교과서와 연계한 전시유물 강의, 감상, 체험활동
	알아보며 즐기는 박물관 한바퀴	국립부여박물관 대표 유물 강의 및 나의 베스트 유물 선정하여 발표·토론
백제전문 프로그램	2013 여름방학프로그램	향로 속 주인공이 되다 -강의, 역할극 시나리오 작성 및 분장도구 만들기, 역할극, 진품감상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재 속에 핀 연꽃	연꽃 축제기간(2013년 7월) -문화재 속 연꽃의 의미 강의, 어린이 다도 시연, 연꽃차 시음 및 전통다식 만들기

⑦ 국립김해박물관

가야의 건국신화가 깃든 구지봉 기슭에 자리 잡은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전시하기 위한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이다. 국립김해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2012년 12월에 새단장을 하여 옛 가야의 역사를 쉽게 상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마련되었다.

가야의 대표적인 유물을 활용한 체험학습은 어린이들의 박물관에 대한 흥미와 가야사에 대한 이해력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대상 국립김해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특별전시와 연계된 교육과

가야 역사 이해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된다. 전통문화교육을 조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야어린이박물관학교의 교육내용을 조사하였다. 가야어린이박물관학교는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4월~12월의 교육 일정동안 가야 역사 이해를 위하여 이론과 체험학습을 하는 전통문화관련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표Ⅲ-17>과 같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가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다각도로 접근하게 된다.

<표Ⅲ-17> 국립김해박물관의 전통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

구분	과정명	주제 및 내용
가야 어린이 박물관 학교	김해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지?	경남, 김해지역 역사와 시대별유물 알기 -유물을 통한 역사연표 만들기
	옛 책에 기록된 가야	삼국유사를 통해 본 가야의 건국 설화 -가야유물 자료집 만들기
	상반기 답사(김해)	구지봉, 수로왕비릉, 대성동박물관, 봉황대유적 답사
	가야의 미	토기와 장신구를 통해 가야인들의 생활모습 이해 -가야 유물 만들기
	철의 왕국, 가야	갑옷카드 만들기
	하반기 답사(창녕, 합천)	창녕박물관, 교동고분군, 석빙고, 합천박물관, 옥전고분군
	가야의 대외교류	가야의 해상활동 이해 -가야의 해상교류활동 지도 만들기

국립박물관 부설형태인 7개의 어린이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각 박물관 마다 특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의 경우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고유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민속박물관은 전통예절,

전통예술, 전통놀이의 다양한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교육을 하고 있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박물관에서 전시된 유물의 이해를 돕는 교육이었고 전통공예, 전통음악 등 전통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산업사회 속의 아이들은 무엇이 우리의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가를 알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서양의 유행을 모방하고 국적 없는 문화의 혼돈 속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전통문화는 우리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다국적 문화가 빈자리를 매워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한 문화에 아이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 (김미경, 2003).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고유한 문화정신을 계승하려는 문화교육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르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예절기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 박물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을 토대로 초등학생 시기에 전통문화교육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통문화교육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전통문화를 분류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첫째, 서울특별시 교육 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학교 전통문화교육을 조사해 본 결과 2011년도 3월부터 11월에 걸친 기간 동안 총 58개의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생활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인사예절(64%), 언어예절(50%), 자세와 식사(42%), 방문예절 (21%), 호칭과 전화예절(14%) 순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전통예절 교육 시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한복입기(82%), (74%), 다례(47%), 다식 만들기(24%)와 관혼상제(9%)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예술은 국악

을 배우거나 관람을 하는 학교는 (88%),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하는 학교는 (13%)로 조사되었다. 전통예술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지만 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통놀이 프로그램은 민속놀이 (60%), 전통음식 만들기(53%), 전통공예(7%) 순이었다. 민속놀이 프로그램은 투호놀이, 윷놀이, 강강술래, 고누놀이, 비석치기 등으로 다양했다. 전통공예에는 청사초롱 만들기, 전통 탈 만들기가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놀이를 교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전통문화교육의 일환인 전통놀이 교육은 일회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간 혹은 교과활동과 연계활동을 갖고 체계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기관의 전통문화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하였다. 예절기관들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10곳을 선별하였다. 각 예절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분석 하였으며 기관의 위치, 교육비, 교육목표, 교육일정, 교육내용 등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모든 예절원에서 인사예절, 식사예절, 전화예절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배례법, 다례교육 등 전통예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었다. 큰절, 평절을 기본으로 하고 한 예절실습과 정성으로 차를 우리는 방법을 배워 차를 마실 때의 예절을 배우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과 올바른 몸가짐을 배우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었다. 조사한 결과 관혼상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고 있었고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인터넷 교육과 국제예절은 교육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 사료된다. 전통예술프로그램의 경우 서예, 천연염색, 전통음악, 전통공예, 도자기, 전통회화 순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전통놀이의 내용으로는 투호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굴렁쇠 굴리기, 국궁 등으로 다양했다. 이는

합숙 시에 전통놀이를 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민속놀이를 배우면서 교육생들이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박물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박물관의 부설형태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7개의 박물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내용을 조사하였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박물관에서 전시된 유물의 이해를 돕는 교육이었고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고유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전통공예, 전통음악 등 전통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따른다.

연구대상이 초등학교에서 정규교과목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닌 비정규적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예절교육기관, 박물관과 같은 외부 교육으로 한정되므로 초등학생의 전통문화교육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 내용과 결과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초등학교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요구와 흥미에 부합하면서,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 강사의 양성도 우선일 것이다.

둘째, 현재 교육분야에서의 테크놀러지의 접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예절교육에서도 인터넷 예절강의, 핸드폰 예절 어플의 활성화 등 다양한 하이테크를 적극 접목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예절은

과거의 전통을 보전, 전승에만 초점을 맞추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보수적 수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변화를 주도하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예절수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박물관에서의 전통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학력 향상 및 사교육 절감을 기대한다.

이처럼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고유한 문화정신을 계승하려는 전통문화교육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첫째, 초등학교의 일반적인 정규교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전통문화교육의 활성화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전통문화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구안에 반영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전통문화교육으로 각 지역별 문화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창의인성 교육넷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의 전통문화교육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광식(1996). 분단체제하의 근대화 유산과 그 문화적 함의. 한국사회의 구조변화와 그 문화적 함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고병익(1976), 『동아사의 전통』 서울 : 일조각.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p. 21, 27.
- 교육과학기술부(2009d). 2009 개정 교육과정 발표 보도자료.
- 구범모·손호철·강내희·심광현·유홍립(1996). 『세계화와 민족문화의 발전』.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경미(2005).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교육적 적용.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03).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의 실태 및 실천 방안 연구.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삼복(1996).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발달이론에 대한 한국적 이해와 비평.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논총 7.
- 김선영(2008). 국립부여박물관 문화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자(2006). 박물관 사회교육에 관한 연구-학교연계 프로그램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중문화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화(2005).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한 조작놀이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규, 임은미(2007). 초, 중, 고등학생의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일반인의 암묵지 탐색. 아시아교육연구학술지. 23, pp.223-245.

- 김장실(2001), 세계화시대에서의 한국의 문화정체성 향상 방안, 『문화 정책논총』 제13집 : 153~182.
- 김종서·양은용·김락필·강돈구·윤원철·조홍윤·김필수(1990),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형숙(2001). 『미술관과 소통』. 서울 : 예경.
- 박소연(2008).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정보교과서 내용 구성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홍숙(2011). 『아동발달론』. 경기 : 공동체.
- 양윤정(2009).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 사회협동연구총서
- 염규영(2005). 어린이박물관 유형에 따른 차별화 방안. 추계예술대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선(2002).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우리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길표·주영애(1995).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 : 신광출판사.
- 이미현(2008).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운영 실태조사와 효과적인 체험전시 개선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형(2002). 『아동·청년발달』. 서울 : 집문당, pp.15~19.
- 이장섭(1998). 전통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이행숙(2003). 예절교육 필요에 따른 교육안 제시 -다도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2. pp.163-187.
- 임재해(1986).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 임재해(1996), 국제화의 민속학적 인식과 생산적 대응의 전망. 한국 민속문화의 탐구. 481-489.
- 전윤하(2006). 전통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덕희(1972). 초등학교 예절 교육의 아동심리학적 고찰(上).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학술논문집, 10(5). pp.30.
- 조복희·도현심·유가효(2011). 『인간발달』, 서울 : 교문사
- 조재훈(1996).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에 따른 발문 유형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배영(2002). 『생활예절과 자기표현』. 서울 : 신광출판사.
- 최선미(2008).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성(2009). 전통문화교육의 이론적 기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 충주교육청(2009). 초등학교 중심 2007년 개정교육과정 연수.
- 홍은주(2008).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의 전통문화교육 내용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보경(1999). 인지양식 및 인지발달단계가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희숙·이희영·이경화·이정화·신경숙·윤경미·강승희·윤소정·황순영(2008). 『아동발달과 교육』. 서울 : 학지사.

인터넷 자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http://www.gcmuseum.or.kr>
국립경주박물관 <http://gyeongju.museum.go.kr/html/kr>
국립광주박물관 <http://gwangju.museum.go.kr/index.do>
국립김해박물관 <http://http://gimhae.museum.go.kr>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http://www.kidsnfm.go.kr>
국립부여박물관 <http://buyeo.museum.go.kr/home.do>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국립청주박물관 <http://buyeo.museum.go.kr/home.do>
동아일보(동아닷컴) <http://news.donga.com/3/all/20121206/51351851/1>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 <http://www.knen.go.kr>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 <http://www.edugd.seoul.kr>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 <http://www.sengs.go.kr>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http://www.sendb.go.kr>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http://www.ben.go.kr>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http://www.sens.go.kr>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지원청 <http://www.sensd.go.kr>
소백산 예절서당 캠프 <http://www.schoolcamp.co.kr>
안동예절학교 <http://www.admanner.co.kr/main.php>
양지서당 <http://www.yangjischool.kr>
예지원 <http://www.yejiwon.or.kr>
이천청학서당, 청소년예절교육수련원 <http://www.chunghakseodang.co.kr>

인성스쿨 <http://www.insungschool.co.kr>

인천어린이박물관 <http://www.enjoymuseum.org>

청학동 공안서당 <http://www.cheonghakdong.net>

청학동서당 청소년수련원 <http://www.chunghak.net>

청학동예절학교 고목당 <http://www.gomokdang.co.kr>

청학동 예절학교 청림서당 <http://www.chunglim.org>

청학동 효 예절학당 <http://www.chunghakdong.co.kr>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e, Hwa-jin

Major in Traditional Culture Contents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Given coming to understand its significance while experiencing and practicing traditional culture amid daily life or educational activity from the day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the student can feel traditional culture pleasantly and significantly, comes to have identity on our traditional culture, and can grow with having a pride of our traditional culture in the middle of diverse cultures in globalization. Also, a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are proceeding with living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the cultural education, which tries to understand about native culture and to succeed to peculiar cultural spirit, has important signific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after-school instruction at elementary school, of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at etiquette institution, and of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at museum. For this, the appropriateness for which the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needs to be performed in the period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was surveyed on the basi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lso, it examined a theory on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and considered a prior research, which classified traditional culture.

To foster 'right attitude of understanding about our culture and enjoying culture,' which corresponds to educational objective of elementary school, it surveyed traditional culture program that is being performed at after-school, etiquette institution, and museum. It examined by classifying the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program into traditional life, traditional arts, and traditional-play activity and by dividing the traditional-life education program into individual life manner/family life manner and traditional etiquette.

Firstly, as a result of surveying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 through homepage of the Seoul Metropolis Office of Education, the program could be known to have been progressed at totally 58 elementary schools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to

November 2011. The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was progressing instruction by school year over a few sessions every school with irregular instruction. Also, greeting a festive season like Chuseok(Korean Thanksgiving Day), the etiquette education and the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were ever progressed. The traditional culture, which is learnt at school, mostly included family manner, school etiquette, and traditional etiquette. This is thought to be because students' activity range includes home and school. In case of etiquette instruction, a parent honorary teacher was indicated to guide students over a few sessions. A traditional play was surveyed to be experienced mainly with greeting a festive season.

Second, to survey the actual condition of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at etiquette institution of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rvey was carried out through web site. It selected 10 educational institutions of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mong etiquette institutions. The contents, which were recorded on homepage of each etiquette institution, were analyzed. The institution location, educational expenses, educational objective, educational schedule, and educational contents were involved in the scope of research. The education of individual life manner/family life manner was carried out lecture on greeting etiquette, meal etiquette, right posture and filial duty at most of institutions. The family life manner/traditional etiquette instruction was formed primarily by greeting(拜禮法), tea etiquette, social manner, respect for elder, and peer-based etiquette. A program

related to traditional arts included learning Korean classical music, learning natural dyeing, making ceramics, calligraphy, learning Hanji(Korea traditional paper) crafts, and learning Talchum(mask dance). The contents of traditional plays were diverse such as Korean archery, Toho(投壺) game, Yut game, Jegichagi(a Kind of Shuttlecock Game Played with the Feet), kite-flying, and playing rolling hoop. This is considered to be the aim of offering an opportunity that trainees come to be close while learning folk games easily and interestingly with playing traditional game given staying in camp.

Third, to survey the actual condition of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at museum, it surveyed education at children's museum for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at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education of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uld be known to be progressed traditional music, traditional food, traditional play, and festive-day experience.

The following limitations are accompanied in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 subjects are limited to external education like irregular special activity, after-school activity, etiquette education institution, and museum, not the instruction that is performed within subject like morality, which is being regularly enforced at elementary school. Thus, there is limitation in generalizing traditional culture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to be needed a research on effective

traditional culture instruction and a research on a plan for activation by developing a program of traditional culture instruction of including the curricular scope in a follow-up research.